

기술사 교육훈련, 3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에서 3년간 90시간

기술사법 개정으로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및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술사교육기관이 3월부터 '기술사 교육훈련'을 본격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이들 기관을 통해 기술사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술사회(www.kpea.or.kr)는 전체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윤리, 국제계약제도, 클레임, 타당성분석 등 17개 과목의 기본교육과 60개 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요강좌(4시간)로 운영하며, 건설사업관리(180시간), 사업관리심화(40시간), 신규기술사연수(8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건설산업교육원(www.ciec.or.kr)은 건설분야 3개 기본교육과정(16시간)과 13개 전문교육과정(16시간)을, 건설기술호남교육원은 가치공학(VE)(40시간), 건설사업관리(16시간), 건설클레임(21시간) 등 3개 과정을 건설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사 교육을 이수하는 기술사에게 설계용역업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사교육기관 추가지정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사교육훈련은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하여 기술사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기술사로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었다. 교육훈련은 크게 수강교육과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되며, 수강교육은 기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윤리, 환경, 안전, 사업관리, 국제계약 등 기본교육과 기술사 종목별 해당 전문교육을 각각 12시간씩 24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66시간은 자율학습활동으로 기술사 본인의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 활동을 훈련 받는다. 현재 기술사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3만3천852명(07.12 기준)이 배출되어 기술사사무소(1천300여 개)를 운영하거나 엔지니어링(5천여 명) 및 건설업체(7천여 명)등에서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공식 임무종료

지난 1999년 12월 발사되어, 임무설계 수명 3년을 훨씬 넘기고 약 8년 동안 지구를 4만3천여 회 돌면서 한반도 및 전 세계의 위성영상 약 44만 장을 확보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의 임무가 공식 종료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통신 두절로 임무수행이 정지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에 대하여 2008년 2월 20일부로 임무를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통신 재개를 위해 총 370여 회 비상 위성관제를 시도하였으나 통신이 재개되지 못했고, 위성의 전력공급 및 잔여 연료량 등을 감안할 때 위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위성의 비정상상태 발생시 지상국 운영메뉴얼(운영지침) 보완 ▲위성 관제 인력의 확보, 훈련 및 자격부여 등 계획 수립·시행 ▲위성과의 통신 횟수 증가 및 안정된 통신이 가능토록 해외 지상국 추가 확보 대책 수립·시행 ▲위성의 임무종료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1호는 그 동안 하루에 14바퀴 반씩 지구를 돌며 위성사진 44만여 장을 촬영하는 등 관측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오면서 해상도 6.6m 급 위성영상과 해양관측 영상 3만 장의 위성사진을 보내왔으며 2006년 7월 아리랑 2호 발사 이후에는 보조역할도 맡아 왔다.

'대전과총' 제2대 회장에 이영호 충남대 교수

월 1회 대덕과학포럼, 우수인력 유입 촉진계획 등 밝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대전과총) 제2대 회장에 이영호 충남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추대됐다. 대전과총은 지난 2월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용접학회 회장, 충남대 및 전국교수협의회 회장, 대전과총 부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1년 2월까지 3년이다.

이 회장은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또는 국내의 과학기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건의를 결집해 대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과학기술인이 중심이지만 대전경제포럼 등 타 단체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공계 기피현상 최소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기존의 ▲대덕과학포럼 및 과학기술포럼 ▲지역과학기술혁신 운영위 ▲과학기술 대중화 특강 등 기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최초 탑승우주인, '이소연'으로 전격 교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3월 10일 한국우주인관리위원회(위원장: 항우연 원장)를 개최하여 오는 4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할 한국 우주인을 '이소연(29세/사진)'으로 전격 교체 결정하고, 동 내용을 러시아 연방우주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종합의료위원회(GMC, General Medical Commission) 결과와 한국 우주인에 대한 훈련과정의 종합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탑승우주인에 대한 변경을 권고하면서 한국측이 최종 결정을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우주인 변경의 주요 사유는 2007년 9월 중순 고산(기존 탑승결정자)이 외부반출이 금지된 훈련교재를 반출(추후반납)하여 훈련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항우(연)에 공식 항의한 바 있고, 2008년 2월 하순 교육과 관련 없는 훈련교재를 임의로 빌려 사용하는 등 반복하여 훈련규정을 위반(repeated misconduct)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은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나 지시위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철저한 우주인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항우(연)은 그동안 두 명의 우주인이 선발 및 훈련과정에서 거의 성적차이가 없었고 똑같은 훈련을 받아왔으므로 '이소연'으로 변경되더라도 임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탑승 우주인 이 씨는 3월 26일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우주기지로 이동하여 관련장비 점검과 과학실험 임무 훈련을 반복한 후, 4월 8일 오후 8시 16분(한국시각)에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비행에 나서며, ISS에서 18가지 과학실험과 우주임무를 수행하고 4월 19일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윗슨,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와 함께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

세계 각국의 치열한 뇌연구 경쟁 속에서, 관련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뇌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지난 2월 19일 개소식을 가졌다. 추진기획단은 향후 약 1년 간 국가 뇌연구의 연계·네트워크 방안 수립, 해외 연구기관의 조사·분석, 뇌연구프로그램 상세 기획 및 로드맵 수립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한국뇌연구원의 유치기관은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결정되어, '09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뇌연구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이므로 21세기 첨단과학의 최전선이자 최후의 과학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주도에 의한 뇌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소를 설립,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가 부족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96년부터 실시해 온 본 사업을 금년부터는 가급적 기업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더 많은 신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되, 지원성고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추가 지원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홍보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평균 67.7%가 홍보 후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매출 증가율은 8.7%로 나타나는 등 홍보전과 비교해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절차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참여 신청서와 제품소개서를 제출(3월 3일부터 수시/예산소진시까지)받아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문, 방송,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제품 홍보지원을 하게 된다. 신청서 서식다운 및 문의처: 중소기업청 www.smba.go.kr 판로지원팀 042-481-4470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www.sbdcc.co.kr 시책사업팀 중소기업제품 홍보담당 02-6678-9312

“교과부(敎科部)로 불러주세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하여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 약칭(국/영문)이 '교과부(敎科部)/MES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로 확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통일된 약칭 제정을 통해 초기 부처 약칭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어,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간부진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